

한국문화교류 소식

3호 2012년 3월 15일 발행 • 발행인 이광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Seoul)

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0 층무빌딩 303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 하와이본부 창립대회를 다녀와서 1

자랑스런 선조들의 뒤를 이어...



박 의 근 본회 재정위원장

알로하!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하와이!
연중 상쾌한 기후의 행복한 파라다이스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은 맑은 하늘, 멋진 태양,
푸근한 아자수, 수영복 차림의 건강한 선남선녀의
행복한 미소까지 '세계적 휴양지'답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한국에서 간
21명의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 하와이본부' 창립
축하 방문단 모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 30분, 와이키키 리조트호텔 2층 강당에서 왼쪽엔 태극기, 오른쪽엔 성조기, 가운데는 'ICKC-HAWAII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 하와이본부 창립대회' 현수막을 걸어놓고 100여명이 창립대회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1명의 방문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와이 꽃목걸이(레이:Lei)로 환영해주는 사랑에 감사하며 다음 식순에 의해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몸을 떨게 하는 전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10년 전, 1902년 12월 22일, 우리의 선조들이 「젤리」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20여일동안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캄캄한 밤하늘과 함께 가졌을 번민과 막막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차로 하와이에 도착한 93명은 23개 섬에 분산되었고 그 후 1905년까지 65회에 걸쳐 7,226명이 하와이로 이주하였습니다. 해외 이민의 첫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그 분들은 사탕수수 밭에서 독일인 감독의 채찍을 맞으며 짐승처럼 일하면서도 신민회

를 만들고 일제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뿌리가 된 독립자금을 보내준 자랑스런 선조들인 것입니다. 그 분들의 높은 뜻을 110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적인 땅에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를 창립하게 됨이 실로 감개무량하였으며 그 분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감격으로 가슴 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서로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의 눈물 잔치를 벌였던 제물포항의 모습이 영화장면처럼 오버랩되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이 그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하와이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와 태권도가 정규과정으로 채택되고, ‘가나다라마바사...’ ‘가갸거겨...’를 공부하는 목소리와 ‘차렷’, ‘경례’, ‘야압!’ 하는 태권도 기합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축하 방문단이 눈물을 흘렸던 그 태극기 앞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정중한 절을 하며 예를 갖게 하는 태권도의 수업과 정신은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선조들의 조국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문명은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사상은 인본주의, 자본주의에서 인간중심으로 갈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신감과 가치상실, 영혼을 잃어버린 나약하고 기계적인 인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어와 태권도는 이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심신의 단련과 충효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어르신 공경과 예절이 한국어와 태권도에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언어학자들이 최고로 꼽는 문자로 그 과학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으며 자랑스럽게도 태권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올림픽 종목입니다. 훌륭한 우리의 양대 문화를 중심으로 11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시작했던 개척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

승하고 더욱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하와이 창립대회에서 현지 지도층 인사들과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국과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순수 민간 사단법인체로 한국어와 태권도를 세계 모든 나라, 학교에서 정규 과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한국어와 태권도를 사랑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여 줄 것입니다.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우리의 보람이며 사명임을 생각하며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창립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조관제 박사님, 김영해 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ICKC하와이 창립을 거듭 축하드리고 큰 발전과 보람 있으시길 비는 마음입니다.



ICKC-Hawaii 임원진

대한민국의 '선진화' 를 위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활동에 참여하며...



김 정 복 전 국가보훈처 장관

저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직을 떠난 지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런 제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에 관심을 가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문화 전파와 교류를 통해 세계 문화발전에 기여하자는 창립 취지가 가슴에 와 닿았고, 둘째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하는 데 대한 전직 공직자 출신으로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앞으로 미력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한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당시를 회상하면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외국의 원조 없이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던 코리아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열강의 반열에 이미 올랐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선진화' 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ICKC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한국어와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 만방에 펼쳐 선진화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월 24일 ICKC 하와이본부 창립대회는 대단한 의미를 지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른 일 다 제쳐 놓고 기꺼이 하와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하와이는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110여 년 전 미국 이민의 시발지일 뿐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찾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하였지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용만 선생 등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하였고, 상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도시에서 국외 처음으로 운동본부를 창립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녔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깊은 뜻을 이미 알았는지 현장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적극 참여를 선언한 현지 또는 미국 본토에서 오신 훌륭한 분들을 비롯한 현지참석자들의 면면이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그 끝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뜻 있는 취지로 훌륭한 분들이 적극 동참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한국문화가 더욱 널리 전파되고, 지속적으로 교류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리라 기대합니다. 함께 합시다!

한국보다 더 많은 한국을 나에게 깨우쳐 준 할렘의 아이들

이 정 진 뉴욕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 스쿨 한국어 반 교사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대학을 가는 동안에는 내가 한국인임을 당연시 했었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별 의미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또 길거리의 상인들조차 모두 한국인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점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했던 시절도 창피하지만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서방에 대한 막연한, 할리우드 영화속이나 존재하는 허상이 있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이의 생각이 그렇게 그릇될 수가 있지?”라며 혀를 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땐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저도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유학 길에 오른 후에야 알았습니다. 매일 내가 타국인으로 살면서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내 입으로 소리 내어 말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잠재되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할렘의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 스쿨은 미국 뉴욕 133가, 할렘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 사

람 한 명도 없는 이 학교는 흑인 80%, 라틴계 학생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년 전 중학교로부터 시작한 공립 차터 스쿨은 학교 설립자이자 교육감인 세스 앤드



류씨의 한국 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 경험이 있던 그는 한국의 교육열,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서로에 대한, 특히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에 매료되어 그가 세울 혁신적인 학교에 한국의 교육과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언어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한국어를 학교의 유일한 졸업 필수 외국어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 중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고, 주변 학교 모두 가르치는 스페인어를 외면하고 한국어를 고집한 앤드류 씨의 과감한 결단으로 저는 80여명의 9학년 학생들의 첫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80여명의 아이들의 눈에는 나는 단순히 한국인 한 명이 아닌 한국, 아시아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안 사람과는 동네 중국 음식점에서 영어로 음식주문을 한 경험 이외엔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아이들에겐 내가 처음으로 만난 아시아 대륙 그 자체였고, 내가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겐 아시아 사람의 음식, 언어, 그리고 행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막중한 책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언어를 가르치자니 우리 아이들은 할리우드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온 아시아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색안경삼아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려면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다른 지부터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지도로 시작해서 세 나라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려주고, 한국만의 전통문화, 역사 등을 언어와 함께 가르쳤습니다. 또한, 미디어에 비쳐지는 아시아 사람에 대한 선입견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 개념 정립을 시킨 후 알려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효, 존경심, 책임감- 등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늘 자신의 이익만을 찬양해온 아이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또한 유토피아 같은 개념인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고 동시에 한국의 문화들을 음악이나, 드라마 등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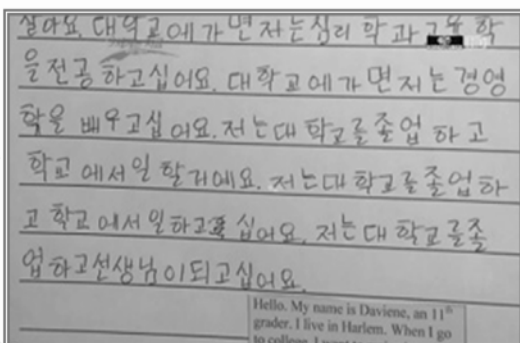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동안, 저는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한국의 아름다움, 이어 가야 할 전통, 선조들의 지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지에 한국 국가대표가 된 저는 이 할렘 아이들을 통해 제가 한국인임을 또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나라인 줄을 깨닫게 된 셈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통해 난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스승입니다.

80여명으로 시작되었던 한국어 반 학생들이 3년차인 지금은 3개 학년, 11개의 반으로 230여명이 한국어 수업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저까지 포함해 3명이 되었습니다. 길가나 지하철에서 보이는 아시아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배짱 좋게 한국어로 말을 건네 보는 우리 아이들, 오리온 초코파이와 가나의 초코파이를 맛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청포도 맛과 자두 맛 사탕에 반해 사탕 껍질을 필통에 고이 간직해서 부모님이 장보러 가게에 갈 때마다 그 껍질을 꺼내서 사탕 진열대를 서성이는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그들이 듣고 배워왔던 한국을 진짜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싶어서, 문화수업을 하는 날이면 눈이 반짝이는 이 아이들이 저는 정말 가슴 찡하고, 한국을 한국교포들보다 더 동경하고 그리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앤드류씨가 1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할렘 저소득층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 구경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참고로, 할렘도 맨하탄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런 학생들에게 세상이 넓은 것을 직접 봐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작은 곳이 유일한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중학교부터 각 학년마다 연말여행을 미국 내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영국, 에콰도르까지 세상 구경을 시켜줍니다.

올해에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국에 가서 자신들이 3년간 배워온 한국을 경험해야 한다고 한국 수학여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할 우리 아이들, 다녀와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아이들 상상만 해도 짜릿하고 흐뭇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한국 사랑을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서 받아주시고 후원으로써 그 사랑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한국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질 않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어 보도

뉴욕 할렘가에 부는 한국어 열풍

KBS 2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에서는 '뉴욕 할렘가에 부는 한국어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데모크라시 프렙 스쿨(Democracy Prep School)'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공립학교 교사였던 설립자 세쓰 앤드류 씨는 한국의 교육적 가치를 미국 교육에 도입하고 싶어 한국 교육 문화를 따른 학교를 설립하였고 할렘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실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방편의 하나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영어권자들이 배우기 어려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설립자의 의도와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매우 재미있어 했으며 장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유리할 것이라며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다.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필수 언어가 되고, 그들에게 더욱 높은 자신감과 함께 희망과 꿈을 주는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고 의미있는 일이다. 프렙 스쿨 외에도 더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는 지금 140회(2012년 1월 30일 KBS 2. 방영) 다시 보기(www.kbs.co.kr/2tv/sisa/liveworldtoday/-vod/-1807261_38377.html)를 통해 볼 수 있다.

나의 자랑, 한국!

(Korea is My Pride as a Taekwondo Master...)

장 세 환 미국 뉴저지 '정심관 태권도' 사범

이제 30살을 넘긴 대한민국 남자인 나는 모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까지 마친 후 도미, 현재 남부 뉴저지에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장님들과 마찬가지로 보조 사범으로 시작해서 머리 사범으로, 지관장에서 한 도장의 관장으로 성장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에 기쁘고 뿌듯하면서 때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인의 도장을 개관하고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채워지는 뿌듯함을 느끼며, 삶의 스승이신 아버지와 태권도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life skills, 태권도의 5대 정신, 격파, 무기술, 겨루기, 품세 등 많은 것을 생각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채워진 듯하지만, 항상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은 "태권, 태권!" 하며 정권지르기를 하고, 제가 주심을 볼 때에도 '차렷', '준비', '시작' 등 여느 도장에서처럼 한국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큰 규모 대회에서 주심들이 하듯이 저 역시 아이들에게 한국식 대회 시스템을 따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라테와 태권도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무술이며 현재 올림픽 정식 종목이고 한국의 고유 무술이다... 예의를 강조하며 본인을 조절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다는 등... 태권도가 '세계 최고의 무술'임을 한껏 자랑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첫 수업시간에 다시 한 번 태권도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벽에 걸려있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가리키며 항상 내 나라와 내 부모, 내 가족을 지키고 소중히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 때 한 학생이 '태극기'를 보면서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국기이며 여러분들이 평생 배울 태권도의 종주국이며 작지만 강하고 끈기와 인내가 강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해력이 빠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는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연령층이 10살 정도였으니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수업 때 큰 아이들에게 다시 또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현대자동차를 타요. '현대'라는 브랜드가 한국 것 맞지요?"

"아냐... 현대는 일본기업이야.."

서로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점을 느



끼며 성인반 수업시간 때에도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나보다 더 살아온 사람들이라 - 최고령자로 65세 할머니도 있음- 아이들과는 다른 대답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성인들은 한국을 IMF를 이겨낸 나라, '삼성'과 'LG'란 회사가 존재하는 나라,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 등등... 한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면 음식문화, 오래된 역사, 한옥, 태권도, 한국전쟁 이후 30여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등 더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해준 한국은 최근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뿐이어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라테 도장에 아이랑 와 있어...”

수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반기러 나오는 도중 어느 어머님의 통화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태권도를 '가라테'라고 하다니... 모두가 '태권도'를 '가라테'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아심을 가지며 수업 시간에 초급반 아이들에게 “너희가 배우는 동양무술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가라테(미국아이들은 '크라리'라고 발음한다)와 태권도란 대답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아이는 가라테랑 태권도랑 같은 거라며 만화영화를 봤는데 우리처럼 흰색 유니폼에 벨트를 맨 사람들이 나왔다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쿵푸펜더'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가?, Jacky Chan과 Jaden Smith가 주연한 가

라테 키드를 보고 그러나?...”를 생각하며 “왜 태권도가 주 배경이 되는 영화가 없을까??? ”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간단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모르는데 태권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내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미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소개 소책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한국을 모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딱 세마디만 켜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답글이 왔으며 'Korea Tourism Organization of New York'을 소개시켜주어 태극무늬 부채, 한국음식, 관광지, K-POP, 한국의 아름다움을 영상화한 DVD등 많은 종류의 홍보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 이메일을 보낸 후 바로 도장 가족들에게 열심히 나눠주며 시간 날 때 아이들과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방문자에게도 현재 관원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제가 꼭 한국에서 온 외교관인 듯 뿌듯했습니다.

그 후 도장 부모님들의 대화 주제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자에 나온 불고기를 해줬었어요.”

“선생님. 이 주변에 한국식당 맛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가족 중에 한국에서 미군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도장 안에 '한국'이란 내 자랑스런 조국이 연이어 나오면서 나는 더욱 힘을 얻게 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도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던 한국 단어에서 수업 전, “안녕하



십니까?” 수업 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원들 사이에서는 “수고했습니다”. 또 구령을 넣을 때도 카운트를 할 때도 한국어를 사용케 했으며 모든 아이들 도복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은 위치에 붙여줬습니다. 더 나아가 상급자들과 유단자,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한국의 역사, 태권도 역사, 약간의 한국어, 한국의 예의 등을 주제로 한 도장 교재를 만든 후, 일 년에 한 번씩 도장 교육과정에 넣어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유단자가 된 아이들은 무릎을 꿇게 하고 한국의 차를 몸을 돌려 마시게 한 후, 큰절을 하고 또 그들 부모에게 큰절을 올린 후 감사 글을 낭독하게 하는 등 한국의 문화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미국인이 지도하는 태권도장이 많습니다. 퇴근길에도 몇몇 도장을 보는데 도장 안에 태극기, 성조기가 나란히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밖에 걸린 간판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가라테’ 라고 써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쉽게 찾는 단어이니 그렇게 한 듯 합니다. 하지만 가라테와 태권도는 분명 다른 무술입니다.

전 나의 조국에 큰 감사와 사랑을 갖지 못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도미 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태권도 사범이란 이미지도 있지만 크게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명함, 도장 홈페이지 등에도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Taekwondo’ 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역사는, 그 뿌리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기 태권도입니다. 한국의 무예 태권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수 천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태권도!!! 오늘도 나는 ‘한국의 태권도’ 를 지도합니다. 정확히, 태권도 사범으로서 나의 긍지인 한국을 가슴 한 가득 품고서...



K-타이거즈 태권 갈라쇼 성황

- 태권도로 우리 문화와 민족 자긍심까지 일깨운다 -

2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 엠블러 삼일체육관에서 초·중·고·대학생에 이르는 50여명으로 구성된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의 갈라쇼가 열렸다. 500여명 수용 가능한 체육관을 꽉 메운 관객들로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K-타이거즈 시범단'은 발차기와 격파 등 태권도 기술은 물론 K팝에 맞춰 춤, 브레이크 댄스, 스토리 상황극 등을 쏟아냈다.

“태권도가 너무 멋있다. 당장 태권도를 배우러 다니고 싶다...”는 어린 학생,

“한국 친구들이 멋진 공연을 펼치는 것을 보고 어깨가 으쓱거려 졌다”는 한인 학생.

“태권도로 우리 문화와 민족 자긍심까지 일깨워 주는 것 같아 가슴 벅차다”는 한인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쇼를 본 감격을 쏟아냈다.

태권도 영화 '더킥'에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며 인기스타로 거듭난 K-타이거즈는 K-POP을 태권 동작으로 재구성한, 화려하고 절도 있는 익스트림 태권쇼 시범단이다. 지난 7월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후, 세계 각국에 초청돼 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런던올림픽에도 공식 초청돼 식전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12.02.29.

■ 2012. 01. 10. 2012년 신년하례회

2012년 새해를 맞아 ICKC의 이광규 이사장, 조정원 총재, 이휴원 고문, 김성진, 김재현, 조남철 부회장단 및 본부운영위원들과 재정위원 김정복, 김만복, 김호일, 박태원 회장 등 총 24명이 참석하여 2012년 임진년 신년하례회를 충무로 대림정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이광규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덕담을 나누며 ICKC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 2012. 02. 06. ICKC 조정원 총재 초청 오찬

ICKC 조정원 총재(겸, WTF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초청으로 이광규 이사장을 포함한 운동본부 임원들은 WTF 사무실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11년 사업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태권도 평화봉사단들에 대한 기초한국어교육실시 및 아이러브태권도 조직활동 등에 관한 세계태권도연맹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간의 상호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 2012. 02. 24. ICKC 하와이본부 창립총회 개최

2월 24일(금), 18시 30분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 하와이본부 창립대회가 열렸고, 공식으로 하와이본부(ICKC-Hawaii)가 설립되었다. 현지 한인회 지도 인사들 80여명과 21명의 한국과 미국본토에서 방문한 축하단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어서 한식부페 식사와 견배를 함께 하면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110년전 이곳에 왔던 선조들을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화합과 열의를 다짐하였다.



문·화·탐·방·안·내 “장충단과 목멱산”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오랜 수도 개경(開京)을 떠나 새나라 조선의 수도로 한양(漢陽)을 선택했다.

현대의 신도시처럼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음은 물론이다.

종묘, 사직, 궁궐, 도로터 등을 정했고 새 도읍 건설의 마무리로 한양(漢陽)을 둘러싸는 도성을 쌓았다.

조선왕조 500년의 이야기는 성곽을 따라 시작된다.

서울의 안산(案山), 목멱산부터 시작한다.

◆ 문화탐방 장소_ “장충단과 목멱산”

◆ 일시_ 2012년 4월 10일(화), 오후 12:30~4:00

※ 오찬(12:30~13:30) 후 문화탐방 진행

◆ 만남의 장소_ 승례문 옆 남대문 시장 1번 게이트앞 앞

◆ 오찬 장소_ 막내 찻집(02-755-5115)

◆ 회비_ 3만원

◆ 연락처_ ICKC-Seoul 사무국 02)2285-1070 김태균 사무차장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위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나눔



에프스이에

press.knou.ac.kr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1주년 기념 포럼

- 일 시_ 2012년 3월 30일(금) 14:30~17:30
- 장 소_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_ 세계 속 한국어와 태권도의 위상

[프로그램]

■ 개회사 및 경과보고

■ 1부 [한국어]

주제: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

발제_ 박 갑 수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_ 최 상 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진 대 연 호원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교육원장

■ 2부 [태권도]

주제: 태권도 강국을 태권도 선진국으로

발제_ 송 종 국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

토론_ 김 하 영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주제: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

발제_ 이 경 명 태권도 문화연구소 소장

토론_ 하 피 터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

[찾아오시는 길] 프레스 센터 / 식사 장소(고기마루)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화환이나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녁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인연과 만남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장소_ 고기마루 T. 02-755-5522)

■ 후원회비 보내 주실 곳

- 신한은행 100-027-567461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